

참진리의 파수망대로 쓰임 받은 골로새의 70인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창세기 1:26-28, 골로새서 1:15-20

정윤돈 목사님

* **창1:26-28**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골1:15-20**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지순례에 가야 하는 이유, 성지순례에서 깨달은 점 등에 대해서 잠시 포럼을 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왜 가야 하는지 기도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가기 전에 “성지순례 왜 가야 해요?” 질문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내가 잘못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 희미하게, 틀린 부분이 있었다.

(1)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 이유이다.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른 장소였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항구였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래 전부터, 우리로 말하자면 지리산과 같이 신당을 짓는 장소였다. 각종 신전이 있는데 판 신전이라고 가장 큰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판 신전을 뛰어넘는 신전을 지었던 것이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것이다.

(2) 한 목사님에게 왜 성지순례를 가야 하냐고 질문하니, “예수님의 다신신 현장을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3) 또 한 사모님은 성지순례는 “나의 버킷리스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확실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이 새로운 것 같다. 복음가진 우리는 성지순례에서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램넛트들이나 성도들이 특히,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경과 복음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4) ‘실로’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실로’는 369년 동안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고, 최초로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장소였다. 이러한 사각지대, 빈 곳을 캠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5) 예수님께서 감람산(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지역을 교단이 다 분배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도 싸우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윈스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지가 중요한 것이다.

(6) 그리고 감사하게도 돌아오면서 유대인 복음화를 마음에 담았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옆자리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신 유대인 여성을 만났다.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하기로 하고 연락처도 받았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결단한 것은 ‘유대인 전도’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들도 나의 나라, 나의 선교현장을 분양받기를 바란다. 나의 나라가 어디인지 확정하기를 바란다. 한 나라 안에 237이 연결된다. 그 집중할 수 있는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골로새교회는 에베소교회에서 훈련받은 70인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지교회였다. 에베소교회의 두란노서원에서 집중훈련을 받다가 문이 열린 현장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골로새에 잘못된 이단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깊고 심오한 그리스도와 복음과 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골로새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의 시작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이고, 결과와 최종목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 해야 하나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강대국도 살릴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살았을 때 우리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1. 첫 번째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 신앙이 있다. 어린 사람들은 조금 응답을 받으면 좋아하고 안 되면 짜진다. 하나님 없다고 하며 원망한다. 그러나 고급, 초특급 신앙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도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 후대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과 중간 사역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램넛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교회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9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만큼 신령한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제목이다. 복음의 참지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내 낮은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저서는 안 된다. 기준이 세상의 것이면 안 된다. 육적인 것이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닌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울무, 틀,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해방과 자유가 없이 우울하다. 내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기도제목은 10절에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할 수 있다. 어떻게 완벽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면 회개하고,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힘, 회개할 힘, 깨달을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넘어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다. 우리는 더욱 예수를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고 흠과 티가 없도록 도전해야 한다.

(3)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는 10절에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다.

(4)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번째는 10 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5)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다스릴 만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 기도는 11 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모든 능력으로 능한' 그리스도의 70 인 제자들과 램넛들이 되는 것이다.

(6)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섯 번째 기도는 11 절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7)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이다.

(8)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12 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8 가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제목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겠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2. 두 번째에서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골로새서 1 장 13 절에서 14 절을 함께 읽겠다. 골로새서 1 장 13 절에서 14 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사탄과 지옥과 죄와 저주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고 행복하지 않고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종교와 철학과 지식으로도 인간들을 흑암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 이스라엘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이 그들의 종교이다. 전통 옷을 입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의 기도를 담게 된 것이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이고 복음에 빚진자인 줄 믿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복음을 갚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1 장 15 절에 보면 "그(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1 장 16 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1 장 16 절을 함께 보겠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리스도 안의 있는 모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발 걸치고, 하나님 앞에 발 걸친다면 하나님도 때리고 마귀도 때린다. 결론내면 지금부터 응답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다.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응답 안 해주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칠거야.' 이런 결단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4) 골로새서 1 장 20 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다.

(5) 골로새서 1 장 21 절에서 23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는 사람은 응답을 오지 않거나 응답을 쏟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낸 확신을 하기를 바란다.

(6)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이고 전도의 절대목표이다. 골로새서 1 장 28 절에서 29 절을 보겠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전도이고 지교회이다. 여기 안에는 권면과 꾸지람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훈계를 우습게 본다 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 목사님의 설교를 우습게 본다 면 광야생활에서 더 일어맞는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붙잡아 가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참된 성공자가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램넛 성도들이 직장, 현장에 가면 다르다. 전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현장에 가서도 복음 안에서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보다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29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은 골로새서 1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골로새서 2 장부터 4 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미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들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골 2:3)가 감추어져 있고 담겨 있다. 즉,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 참복음이며 참진리이다. 또한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모든 철학과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 시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와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모든 것 되시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300 영접에 도전한다면 에베소와 골로새의 70 인 제자들과 같은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후대 램넛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램넛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성지순례캠프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육하고 번성할 만큼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절대 파수망대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